

2026년 04월 20일 |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전략팀 | 자산배분

월간 자산배분 :인플레이션과 AI모멘텀 민감 구간

퀀트/자산배분 Analyst 최재원 c.jw5056@kiwoom.com

RA 이현수 hslee@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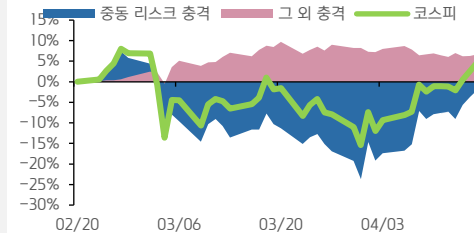
(요약) 4월 자산배분 Key Charts

4월 자산배분 전망

		SAA	TAA	자산별 최근 수익률		
			4월	1M	3M	6M
		(%)	(%)	(%)	(%)	(%)
주식	국내	7.5	9.0	5.1	32.8	78.6
	미국	28.5	30.0	7.7	3.0	7.6
	선진(미국 제외)	12.0	13.0	6.4	5.0	13.8
	신흥	7.0	7.0	5.5	8.0	18.2
종합		55	59.0			
채권	국내종합	22.0	20.0	0.5	0.7	0.5
	미국국채	10.0	10.0	1.7	0.9	3.0
	미국HY	3.0	2.0	-0.1	-0.6	-3.1
종합		35	32.0			
대체	금	5.5	4.5	-0.8	5.7	15.9
	글로벌 REITs	4.5	4.5	5.8	6.5	9.7
	현금	0.0	0.0			
종합		10	9.0			
원/달러				-2.7	-0.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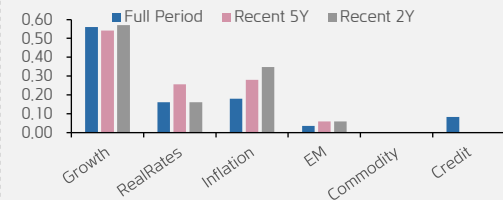
- * 지정학적/유동성 리스크가 완화되며 증시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개선 중
- * 견조한 실적의 AI테마를 중심으로 주요국 증시는 실적 모멘텀에 민감한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 다만, 재차 AI 버블 경계감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은 경계 필요
- * 자산군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높은 민감도 구간이 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채권 대비 주식 비중에 대한 확대 의견을 유지. 주식은 권역 구분보다는 AI 수혜가 집중되는 국가들에 대한 관심 지속

포인트 1.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 * 미-이란간의 휴전협상으로 시장에 잔존하는 지정학 리스크는 상당부분 완화
- * 다만, 이전 대비 유가 수준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이에 따른 후속 영향이 있을지 여부는 추적 관찰 필요

포인트 2. 인플레이션 민감도 확대



- * 장기 평균에 비해 인플레이션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구간에 위치하고 있음.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에너지 비용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내에서 인플레이션 방어 필요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각 자산별 BM 지수: 국내주식(KOSPI 200), 미국주식(S&P 500), 선진(미국 제외)(MSCI World Ex US), 신흥주식(MSCI Emerging), 국내채권(KIS 종합채권), 미국국채(Bloomberg 미국 채권 종합), 미국HY(Bloomberg 미국 회사채 HY), 글로벌 REITs(S&P Global REIT)

Contents

Part 1. 월간 이슈: 인플레이션과 AI모멘텀 민감 구간 p. 04

Part 2. 4월 자산배분 전략 및 동향 p. 1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 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 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Part 1.

월간 이슈: 인플레이션과 AI모멘텀 민감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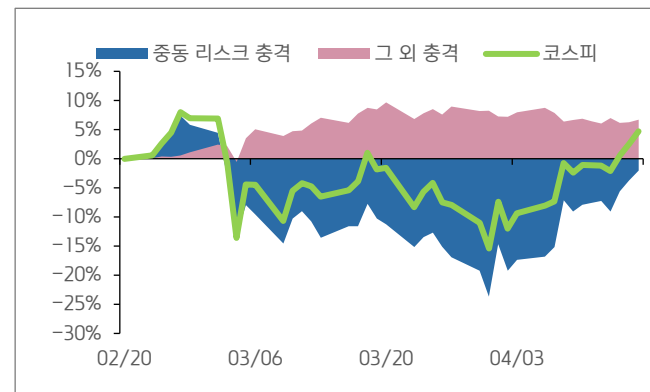


01.

국내외 증시의 전쟁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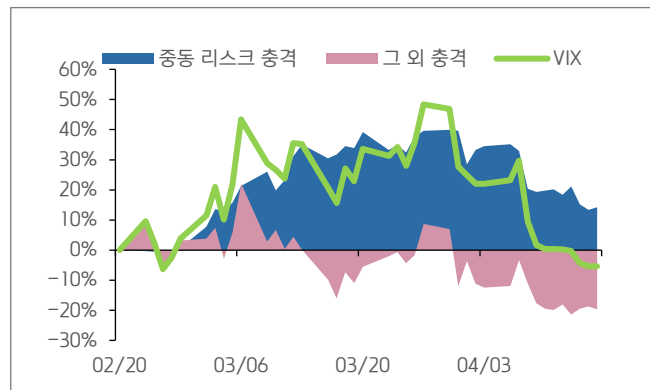
- ▶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한 2/28을 기준으로, 국내 그리고 글로벌 증시(미국 제외) 에서 중동발 리스크의 충격 영향을 분리해 살펴볼 수 있음
 - 금리 및 금리차, 환율 그리고 원유 가격을 이용
- ▶ 4/7 양국간의 휴전협상을 기점으로 시장에서는 관련 우려가 빠르게 완화되는 모습
- ▶ 여전히 일부 중동 리스크 변동 요인이 남아있는 점은 국제 유가 안정이 더디게 이루어지며 기대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

한국 증시 주가 지수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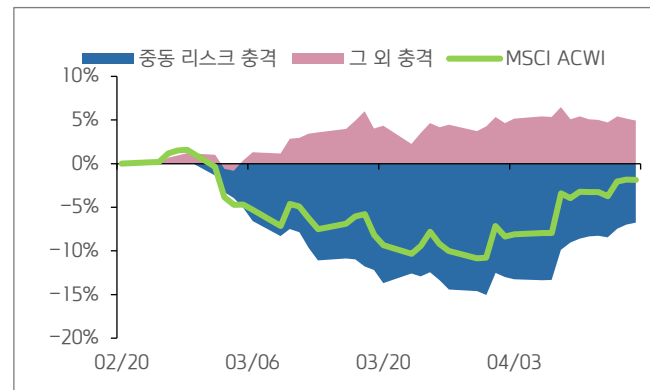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VIX 지수 변동 요인 분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MSCI ACWI(ex-US) 증시 주가 지수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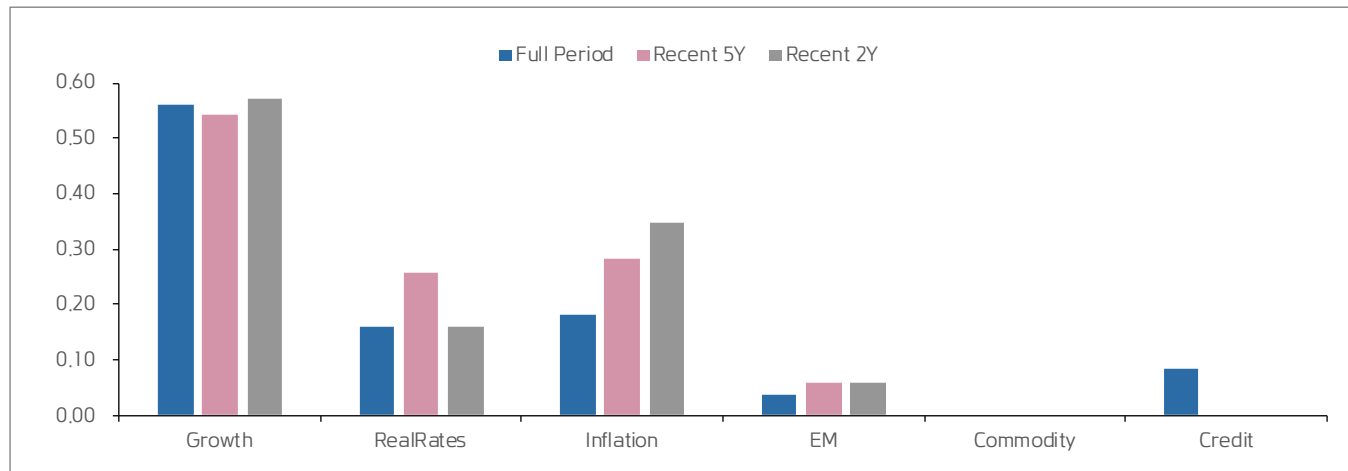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2.

최근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모습

- ▶ 2011년 이후 현재까지의 전체 기간과 비교해 봤을때,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의 팩터별 노출도는 인플레이션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
- ▶ 최근 5년,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기인한 금리 사이클의 변화가 컸으나, 최근 2년 기준으로는 실질금리 영향력은 다 시금 장기 평균으로 돌아간 반면, 인플레이션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음
- ▶ 이러한 상황은 현재 휴전 상황에도 유가 안정이 지연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민감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

BM 포트폴리오의 기간별 매크로 팩터에 대한 노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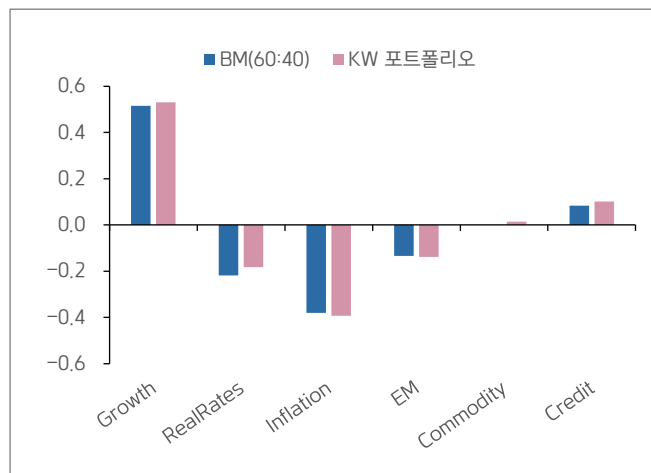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3.

(참고) 전통적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통해 보는 매크로 팩터 민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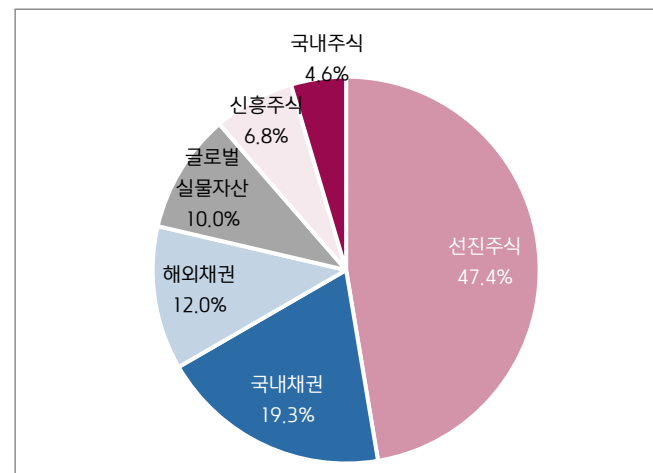
- ▶ 대표적인 매크로 팩터 성장, 실질금리, 인플레이션, 신흥시장, 원자재, 크레딧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글로벌주식(60)/국내채권(40)의 포트폴리오 역시 가장 핵심적인 성장, 실질금리, 인플레이션 팩터의 영향력이 가장 큰 모습
- ▶ 이를 바탕으로 가용한 투자유니버스를 이용해 BM포트폴리오가 지니고 있는 매크로 팩터 노출도와 최대한 일치하는 자산군 기반 포트폴리오를 KW 포트폴리오로 설정

주요 매크로 팩터에 대한 BM 및 포트폴리오의 노출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BM의 매크로 팩터 노출도를 추종하는 KW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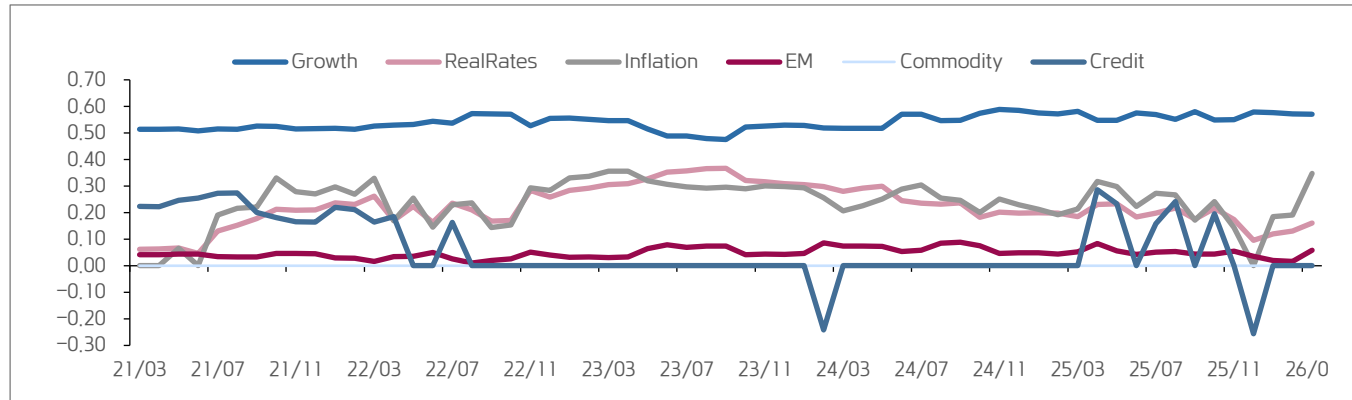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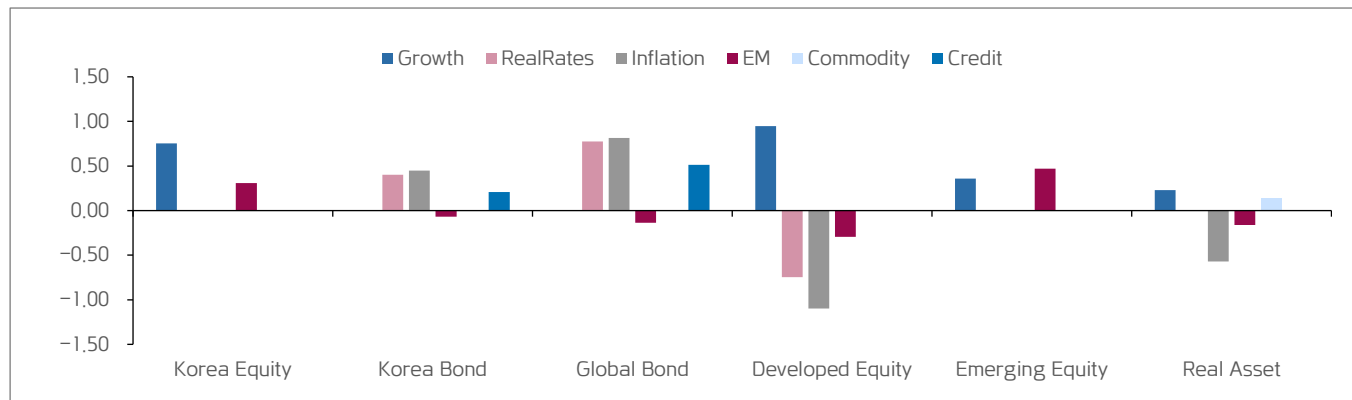
04.

(참고) 매크로 요인 동향

BM 포트폴리오의 24개월 이동 베타



KW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군별 매크로 팩터 노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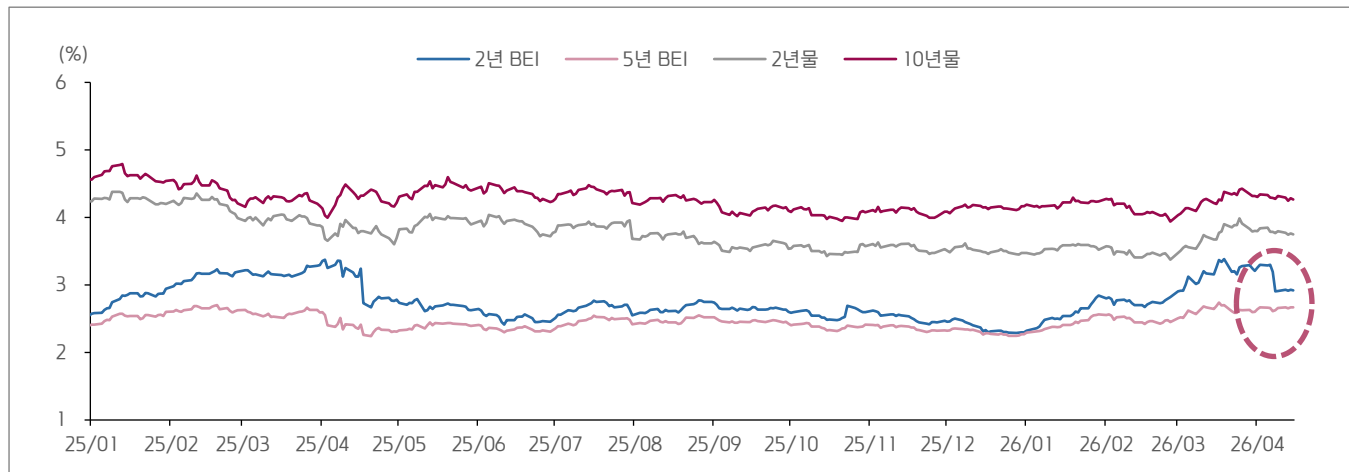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5.

휴전 이후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적

- ▶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유가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안정된 모습
- ▶ 다만, 점진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고유가 우려가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

글로벌 기대인플레이션 및 시장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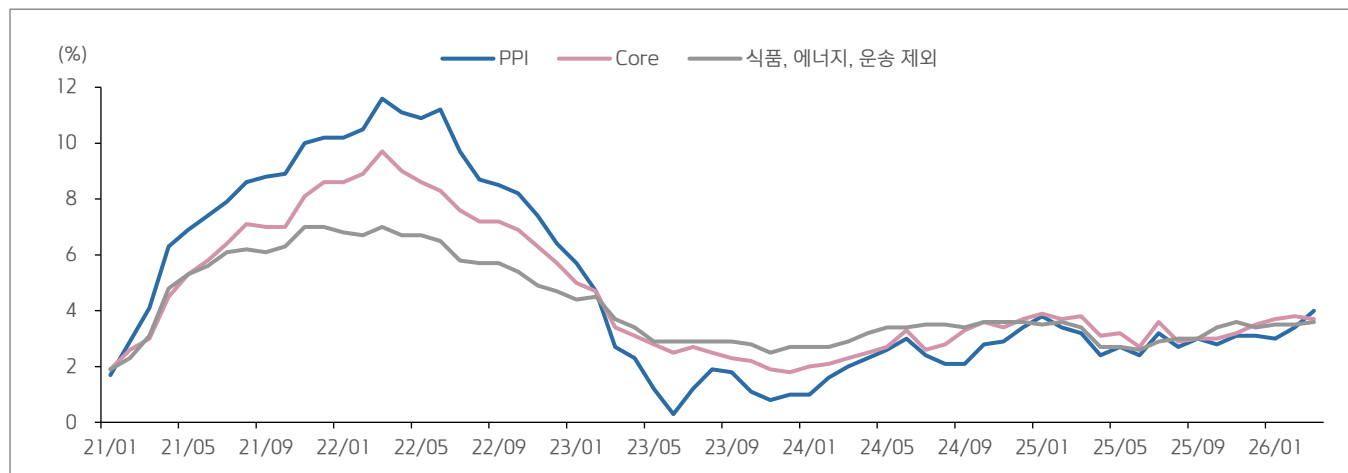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6.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우려를 하회했으나...

- ▶ 지난 주 발표된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에 그치며 시장 예상인 1.1%를 크게 하회.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연출된 고유가 충격이 예상보다 제한
 -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4.0% 를 기록하며 전월의 상승률인 3.4% 보다도 가속
- ▶ 시장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이 예상보다 제한적이었고, 미-이란 간의 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관련 우려를 낮춰가고 있음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7.

아직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제한 ...

- ▶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경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고,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공급망 전격 회복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은 경계감을 남겨 놓는 배경
- ▶ 관련 데이터 발표에도 아직까지 CME Fed Watch 상의 금리 인하 확률 전망은 연내까지도 금리 동결이 소폭 우위

CME Fed Watch 금리 인하 확률 전망

MEETING DATE	200-225	225-250	250-275	275-300	300-325	325-350	350-375	375-400
2026-04-29		0.0%	0.0%	0.0%	0.0%	0.0%	99.5%	0.5%
2026-06-17	0.0%	0.0%	0.0%	0.0%	0.0%	5.4%	94.1%	0.5%
2026-07-29	0.0%	0.0%	0.0%	0.0%	0.5%	13.0%	86.1%	0.4%
2026-09-16	0.0%	0.0%	0.0%	0.1%	3.6%	31.5%	64.5%	0.3%
2026-10-28	0.0%	0.0%	0.0%	0.4%	5.8%	34.0%	59.5%	0.3%
2026-12-09	0.0%	0.0%	0.1%	1.2%	9.9%	37.7%	51.0%	0.3%
2027-01-27	0.0%	0.0%	0.1%	1.6%	11.1%	38.3%	48.6%	0.3%
2027-03-17	0.0%	0.0%	0.2%	1.9%	12.0%	38.6%	47.1%	0.2%
2027-04-28	0.0%	0.0%	0.2%	1.8%	11.8%	38.0%	46.9%	1.2%
2027-06-09	0.0%	0.0%	0.2%	1.8%	11.4%	37.2%	46.6%	2.8%
2027-07-28	0.0%	0.1%	0.9%	6.2%	23.1%	41.5%	26.7%	1.5%
2027-09-15	0.3%	2.3%	10.6%	28.0%	37.6%	20.1%	1.1%	0.0%
2027-10-27	0.0%	0.4%	2.6%	11.3%	28.3%	36.9%	19.4%	1.1%
2027-12-08	0.3%	2.3%	10.3%	26.4%	36.0%	21.3%	3.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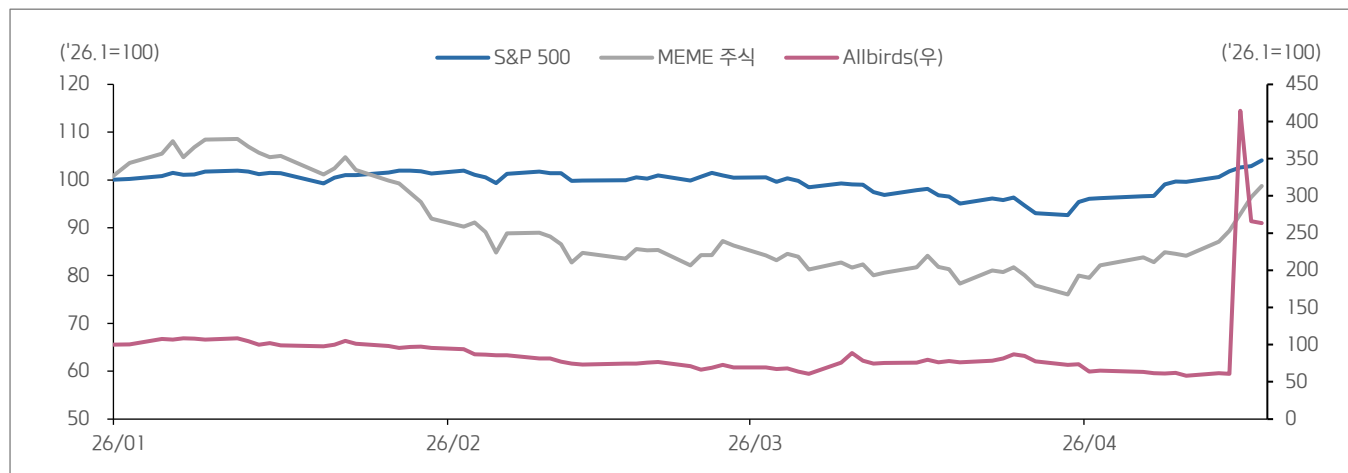
자료: CME FedWatch,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8.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되었으나... 시장은 AI 버블 가능성 존재

- ▶ 휴전 협상과 함께 글로벌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다시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
- ▶ 다만, 변동성 완화와 함께 다시금 밈 주식을 비롯해 AI에 대한 과도한 부화뇌동격 트레이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1분기 어닝시즌을 지나는 과정에서 보다 유의할 필요

밈 주식과 올버즈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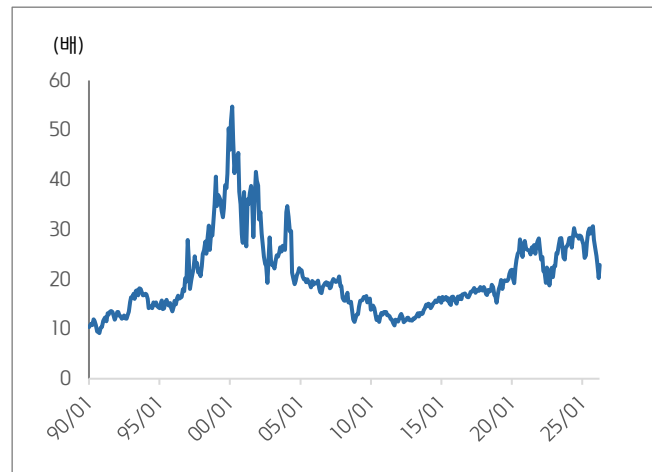
- ▶ 3월 동안 이어진 미-이란 간의 전쟁 이슈로 증시의 가격 조정 흐름이 연출된 가운데, 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견조하게 우상향 한 결과, S&P 500 IT 기업들의 PER(Fwd. 12M)은 현재 22배 수준까지 하락
 - 지난해 하반기 30배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빠르게 낮아짐
- ▶ 그럼에도 증시 전반의 밸류 부담은 역사적인 수준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
 - S&P 500 전체의 PER은 현재 20배 수준으로 과거 5년 평균 수준

S&P 500, PER(Fwd. 12M)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 500 IT 업종, PER(Fwd. 12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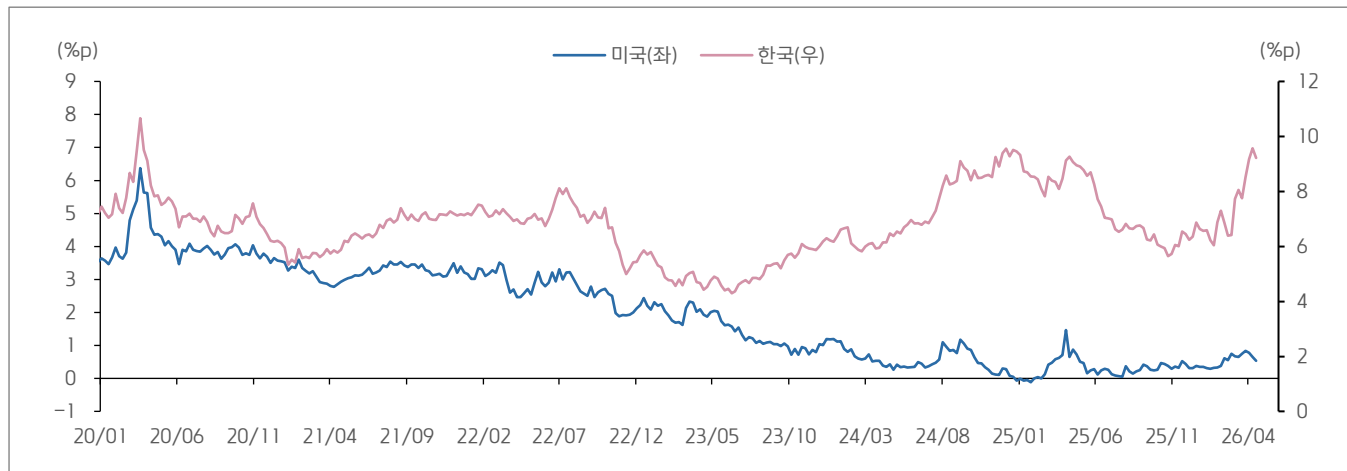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0.

한/미 공통적으로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 ▶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AI 모멘텀 주도의 실적 개선 흐름으로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한층 완화.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로 인해 채권 약세 구간 연출
- ▶ 다만, 에너지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제한되며, 금리 방향성은 제한될 가능성에 무게
- ▶ 현재 진행중인 1분기 어닝시즌을 맞아 주식 자산 내에서의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AI 모멘텀 수혜가 예상되는 권역 내에서 펀더멘털이 견조한 우량 종목 선별 필요

한국과 미국 증시의 어닝스 일드 갭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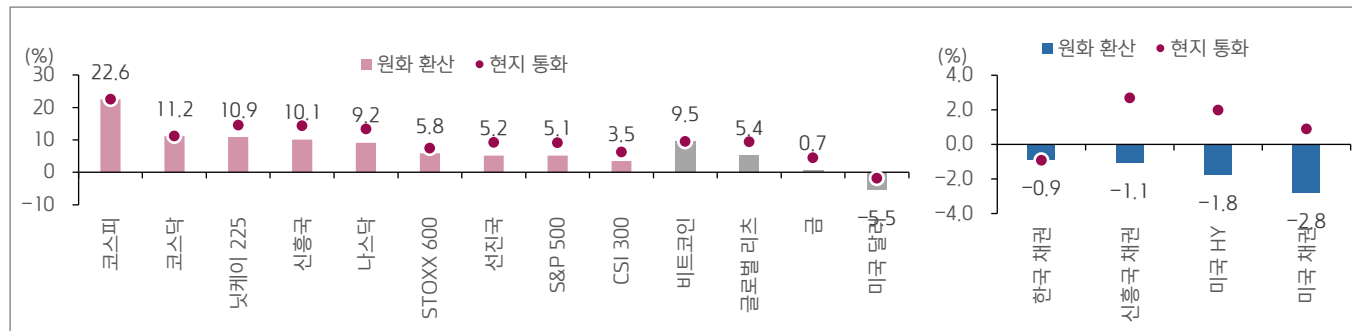
4월 자산배분 전략 및 펀더멘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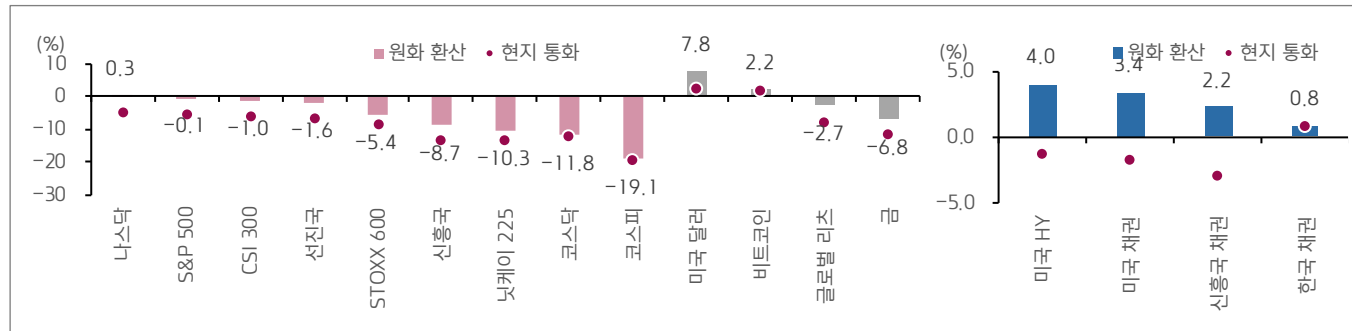
01. 월간 자산군 성과 리뷰

- ▶ 4월 코스피(+22.6%)는 지난 3월 전쟁 리스크로 인해 연출된 조정폭을 빠르게 회복하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성과를 기록 중.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실적 전망이 재창 상향된 영향
- ▶ 미-이란 간의 협상 기조 전환과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는 안정되는 모습. 그 결과 주요 대체자산 중 비트코인(+9.5%)의 반등 흐름이 가장 두드러졌고, 그 외에도 금(+0.7%) 역시도 달러 약세로 추가 하락 제한

주요 자산군 월간 성과 (4월 MTD)



주요 자산군 월간 성과 (3월)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원형 표시는 환 효과 고려되지 않은 경우 수익률

02.

4월 자산배분 전략

- ▶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나, 시장은 협상 타결에 무게가 실리며 지정학적/유동성 리스크 완화. 그 결과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개선 중
- ▶ 견조한 실적의 AI테마를 중심으로 주요국 증시는 1Q 어닝시즌을 지나며 실적 모멘텀에 민감한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 다만, 재차 AI 버블 경계감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은 경계 필요
- ▶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높은 민감도 구간이 연출되고 있는 점 그리고 유가 충격의 시차를 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채권 대비 주식 비중에 대한 확대 의견을 유지
 - 주식은 권역 구분보다는 AI 수혜가 집중되는 국가들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 지속

4월 자산배분 비중 및 최근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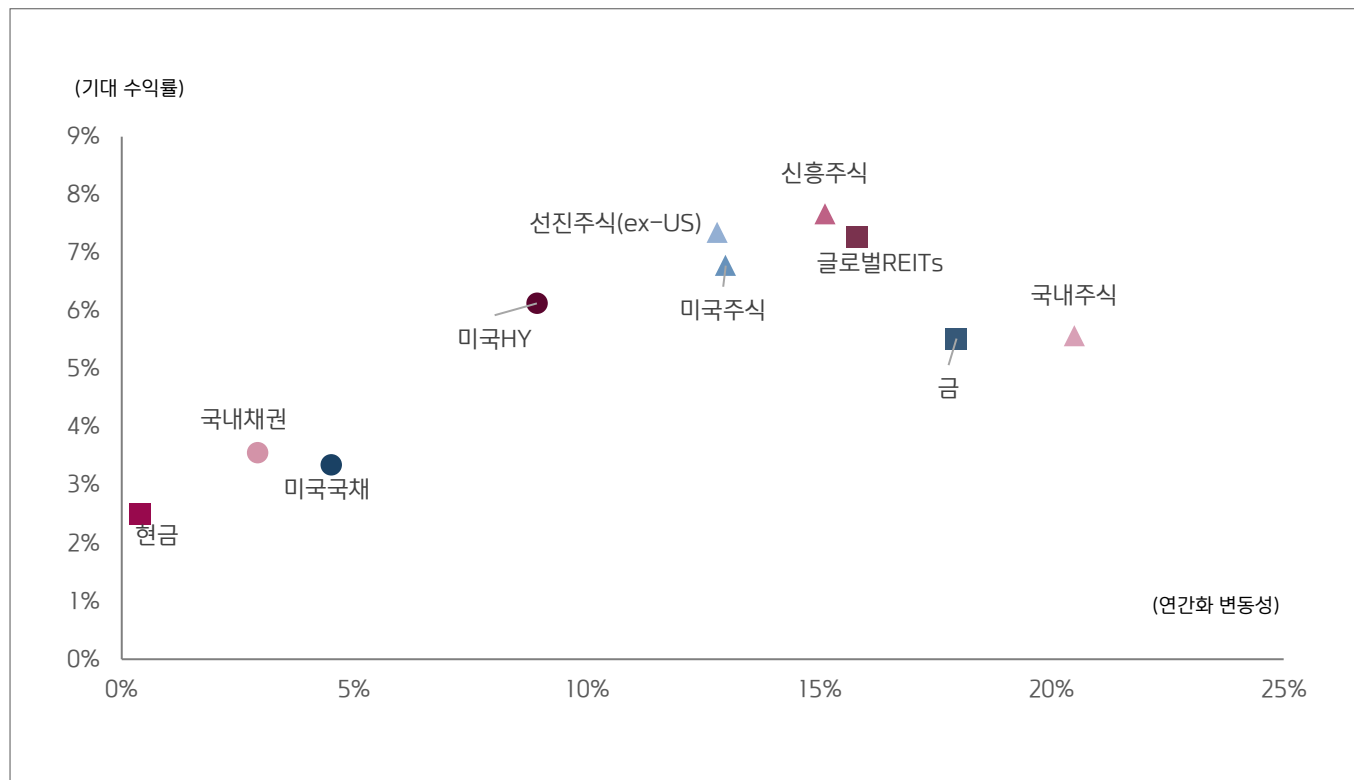
		SAA	TAA	자산별 최근 수익률		
			4월	1M	3M	6M
		(%)	(%)	(%)	(%)	(%)
주식	국내	7.5	9.0	5.1	32.8	78.6
	미국	28.5	30.0	7.7	3.0	7.6
	선진(미국 제외)	12.0	13.0	6.4	5.0	13.8
	신흥	7.0	7.0	5.5	8.0	18.2
종합		55	59.0			
채권	국내종합	22.0	20.0	0.5	0.7	0.5
	미국국채	10.0	10.0	1.7	0.9	3.0
	미국HY	3.0	2.0	-0.1	-0.6	-3.1
종합		35	32.0			
대체	금	5.5	4.5	-0.8	5.7	15.9
	글로벌 REITs	4.5	4.5	5.8	6.5	9.7
	현금	0.0	0.0	-	-	-
종합		10	9.0			
원/달러				-2.7	-0.9	2.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1) 각 자산별 BM 지수: 국내주식(KOSPI 200), 미국주식(S&P 500), 선진(미국 제외)(MSCI World Ex US), 신흥주식(MSCI Emerging), 국내채권(KIS 종합채권), 미국국채(Bloomberg 미국 채권 종합), 미국HY(Bloomberg 미국 회사채 HY), 글로벌 REITs(S&P Global REIT)

03. (참고) 자산별 수익률 및 변동성 가정

유니버스 해당 자산들의 기대수익률 및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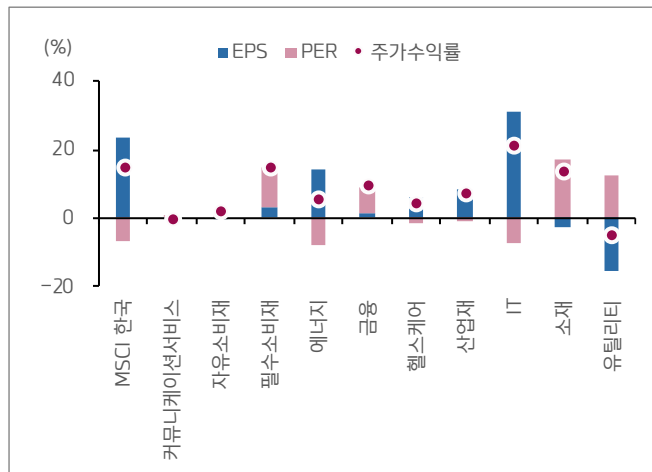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4. 한/미 업종별 주가 수익률(1M) 동인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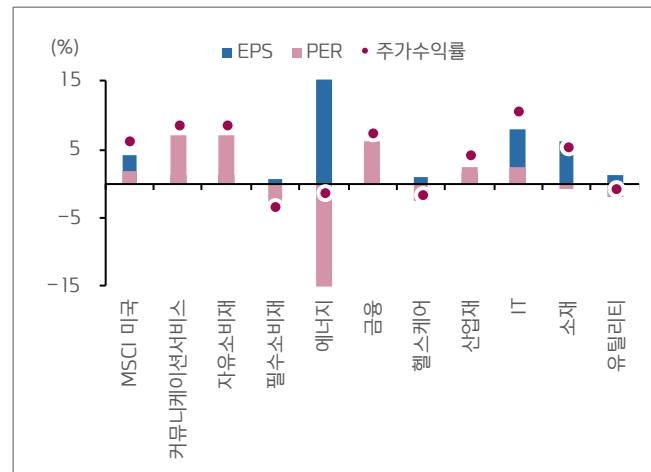
- ▶ 한국은 선행 12개월 EPS(+23.5%)는 개선되며,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EPS 개선 탄력을 기록. 4월 초 이후, 미-이란 간의 협상 진전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세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실적 상향 속도가 우세하며 밸류 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하락(-9.0%)
- ▶ 국내 업종 중에선 IT 업종을 제외하는 경우, 에너지(11%), 산업재(8.5%), 헬스케어(+6.5%) 등의 EPS 개선
- ▶ 미국 증시 또한 중동 리스크 완화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양호한 수익률(+6.0%) 기록. 선행 12개월 EPS(+4.1%) 증가하며 1분기 어닝시즌 기대감 유효
- ▶ 업종 중에선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에너지(+17%) 업종의 EPS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가운데, 그 외에도 IT(8%), 소재(6%) 등의 실적 개선세 연출

한국, 업종별 최근 주가 수익률(1M) 동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업종별 최근 주가 수익률(1M)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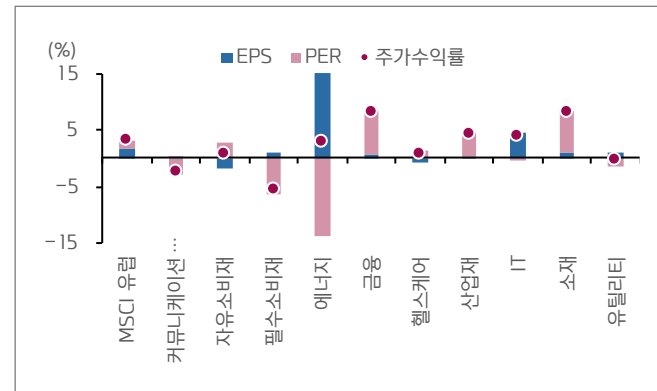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5.

유럽, 일본, 중국 업종별 주가 수익률(1M) 동인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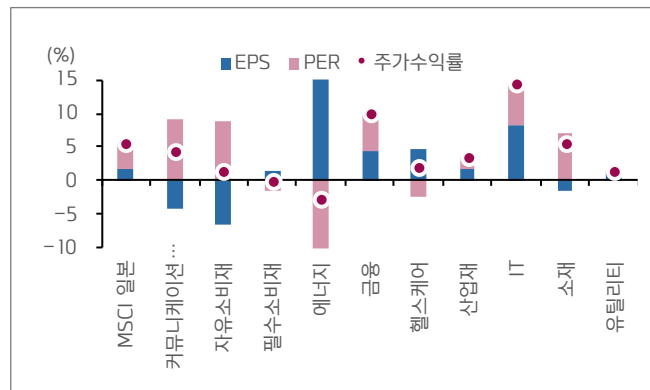
- ▶ 유럽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여전히 가치 스타일 업종의 강세 연출. 금융(+9%) 업종을 비롯해 소재(8%), 산업재(4.8%) 등이 강세
- ▶ 일본 또한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함께 재차 IT 업종(11%)의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며 가장 높은 성과 기록. 그 외에도 금융(9.3%) 업종 역시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 높은 수익률 기록
- ▶ 중국의 경우, 글로벌 증시 대비 변동성이 제한된 흐름 지속 중. 그 중, 헬스케어(+12%) 업종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고, 그 외에도 금융(+4.5%) 업종 또한 양호

유럽, 업종별 최근 주가 수익률(1M)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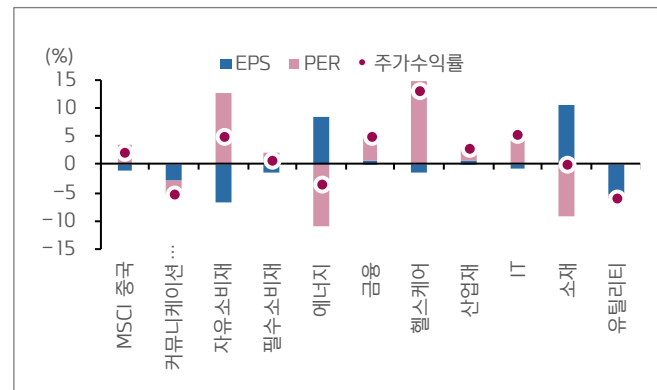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일본, 업종별 최근 주가 수익률(1M) 동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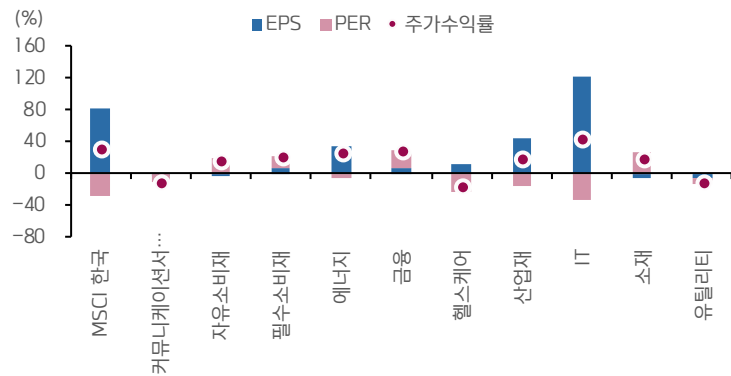
중국, 업종별 최근 주가 수익률(1M)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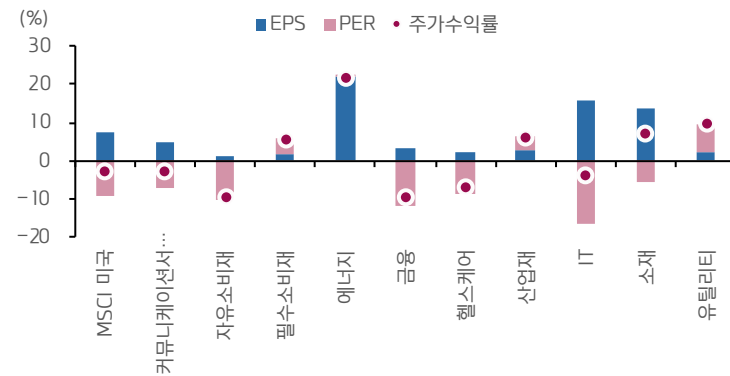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6. (참고) 주요국 업종별 주가 수익률(3M)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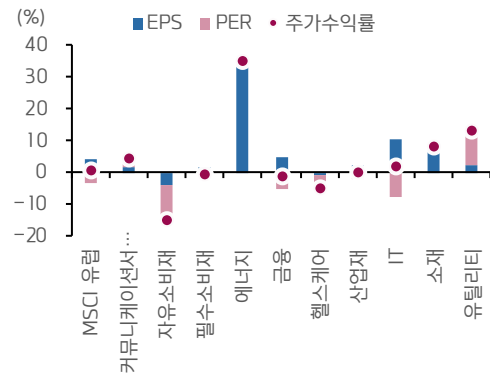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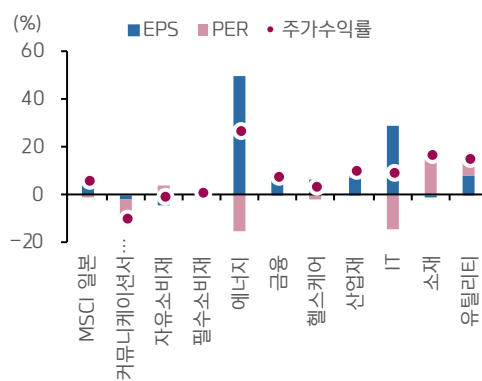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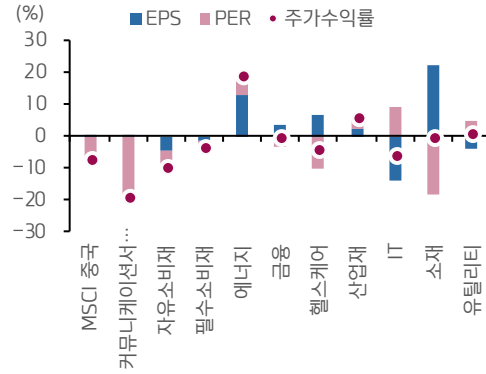
유럽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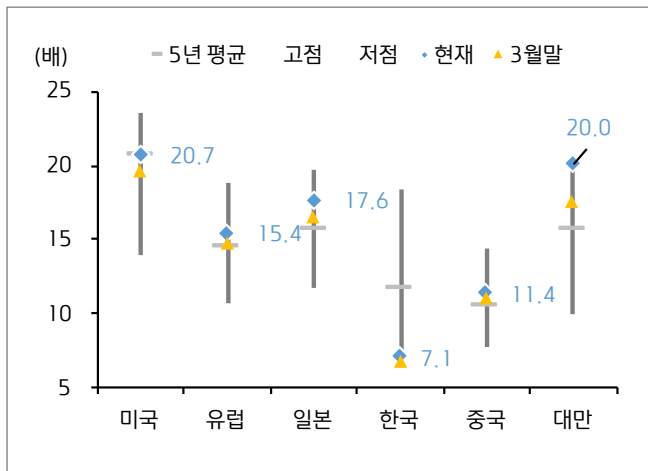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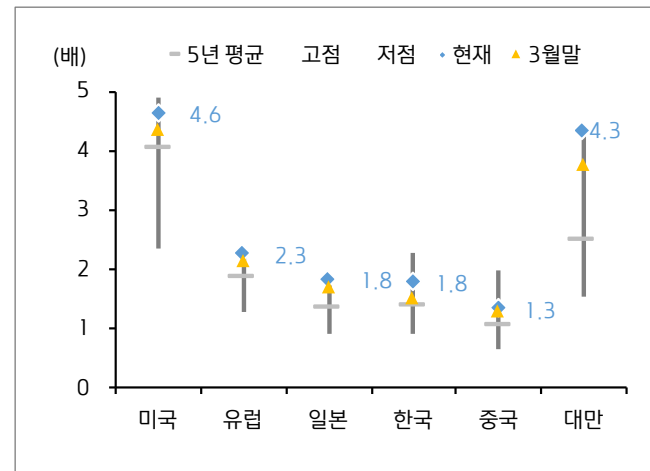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7. 주요국 증시, 밸류에이션 현황

- ▶ 미국은 선행 12개월 PER은 현재 20.7배 수준으로 장기 평균 수준에 위치. 3월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되는 구간을 소화하는 가운데, 실적 전망은 견조하게 우상향 하는 흐름이 이어진 까닭. 그 결과 이전에 불거졌던 AI 버블 관련 부담은 완화
 - ▶ 한국의 선행 12개월 PER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한 자릿수인 7.1배 수준에 위치. 반도체 업종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 전망이 재차 상향된 영향. 다만,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는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업종간 차별화 존재
 - ▶ 유럽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저렴한 15배 수준. 주요 가치주 업종의 주가 흐름은 양호하나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요국 대비 제한되며, 밸류에이션 멀티플 또한 혼조
 - ▶ 대만 역시 TSMC를 필두로 한 AI 테마 밸류체인 수혜 영향으로 주가 상승세가 연출되며 높은 멀티플 수준 위치
- 주요국 최근 5년 P/E(Fwd. 12M) 범위 주요국 최근 5년 P/B(Fwd. 12M) 범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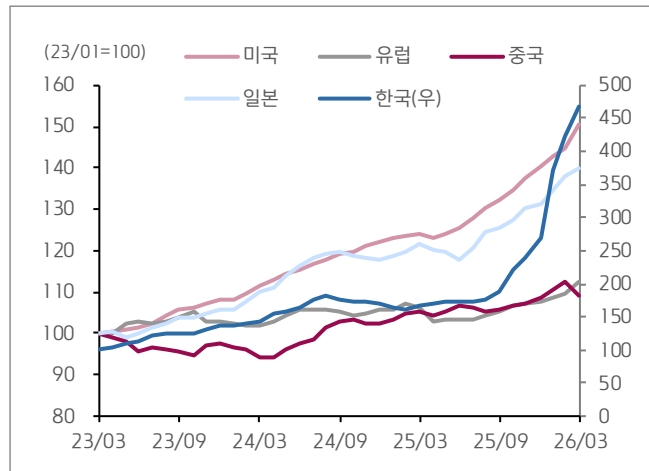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8. (실적) 주요국 증시, 실적 전망 추이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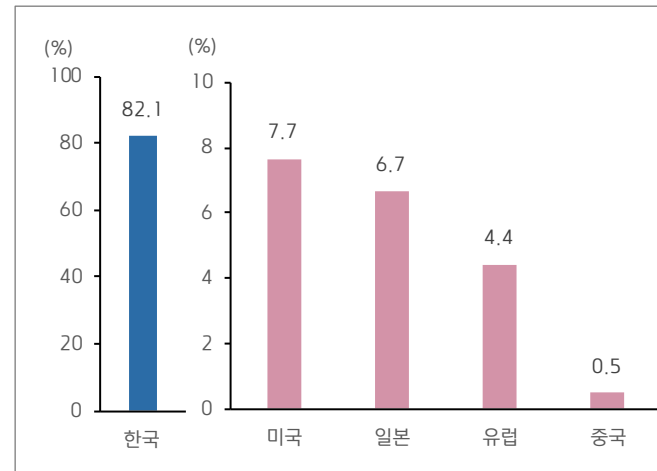
- ▶ 한국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가파른 실적 전망 상향 지속 중. EPS(Fwd. 12M)의 3개월 변화율 기준 IT(121%), 산업재(44%) 등의 개선폭이 큰 상황
- ▶ 미국은 미국 이외 지역과 비교해 주가 상승 탄력은 부진했으나, 실적은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 지속 중. 특히 에너지(22%), IT(15%), 소재(14%) 등의 고른 이익모멘텀 보유
- ▶ 유럽은 AI 인프라 투자 지속 및 유가 급등에 힘입어 에너지(34%), IT(11%), 소재(8.6%) 강세
- ▶ 일본 역시 유가 영향으로 에너지(50%) 업종의 실적 변화율이 가장 컸으나, 여전히 AI 인프라 수혜가 예상되는 IT(29%) 업종의 이익모멘텀 견조
- ▶ 중국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가운데, 정책 주도 기대감과 함께 소재(22%), 에너지(13%), 헬스케어(7%) 등의 실적 모멘텀이 두드러짐

MSCI 국가지수별 EPS(Fwd. 12M) 추이 (3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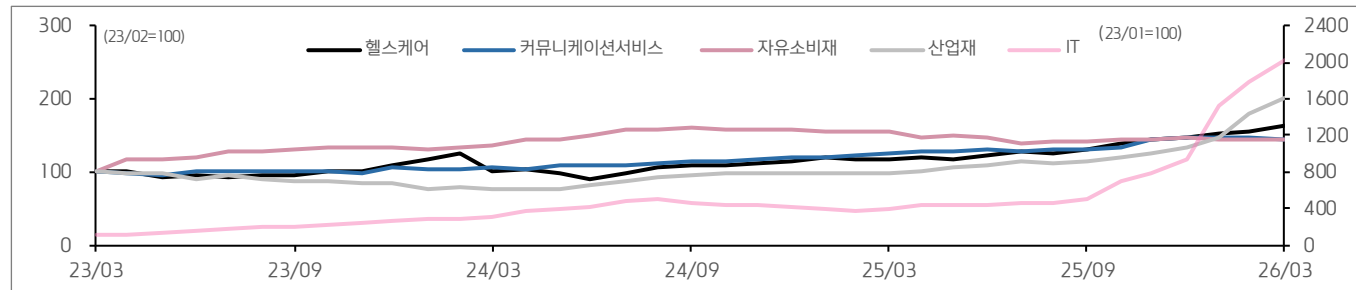
국가별 EPS(Fwd. 12M) 최근 변화율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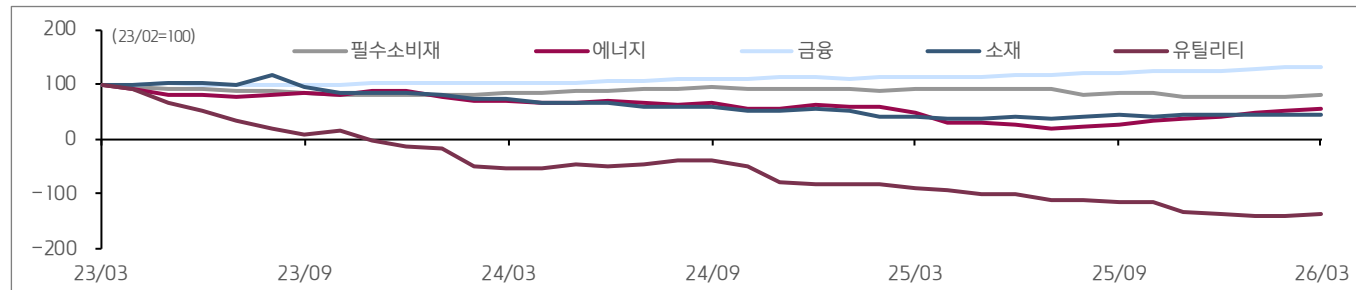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9. (실적) 한국 EPS(Fwd. 12M)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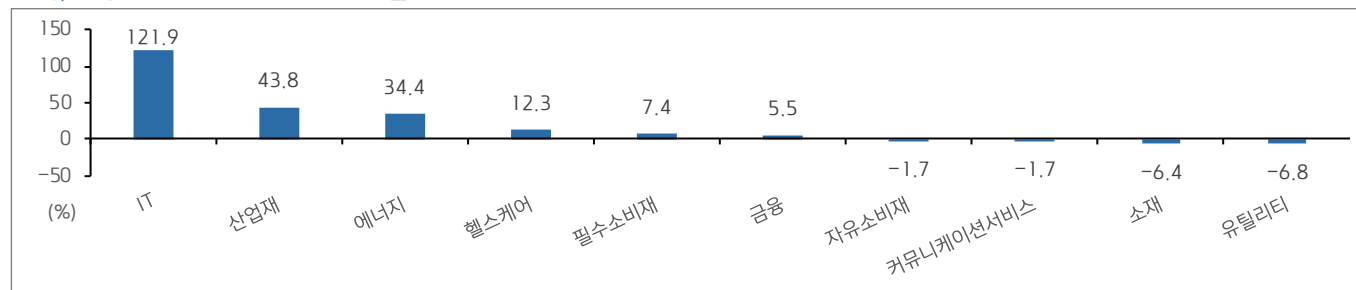
한국,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1)



한국,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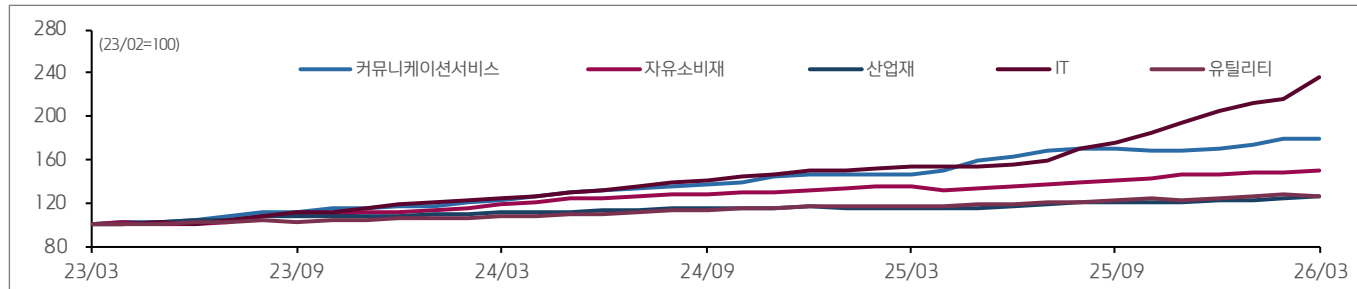
한국, 업종별 최근 3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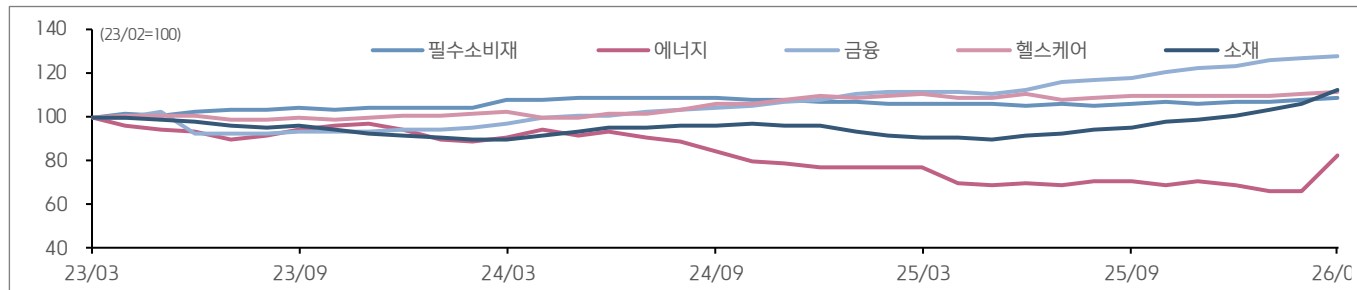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0. (실적) 미국 EPS(Fwd. 12M)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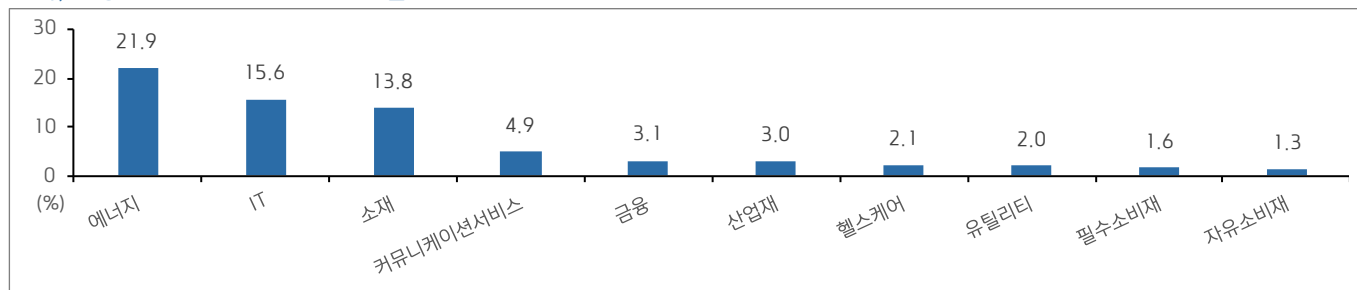
미국,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1)



미국,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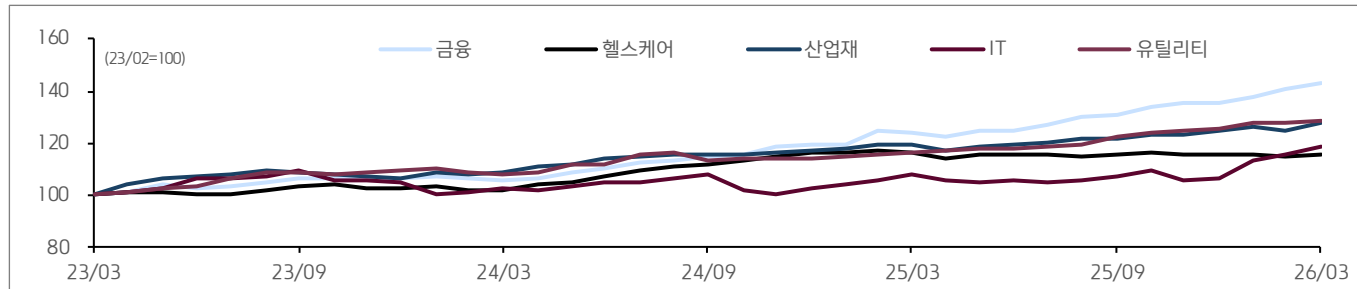
미국, 업종별 최근 3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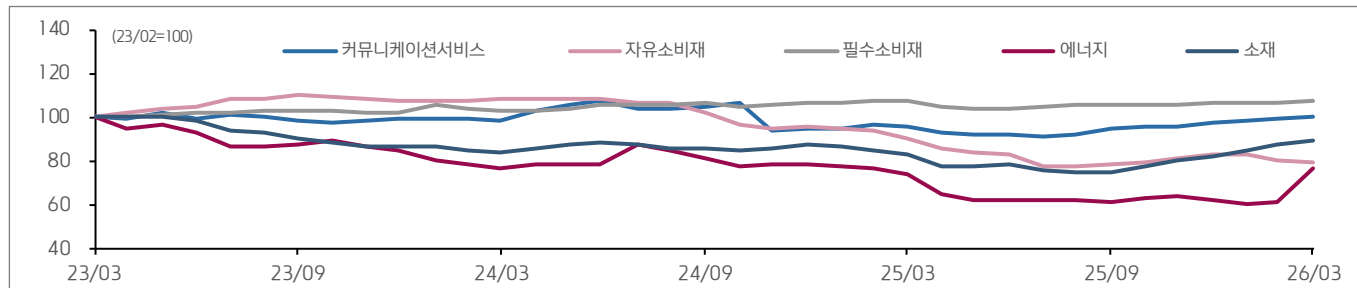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1. (실적) 유럽 EPS(Fwd. 12M)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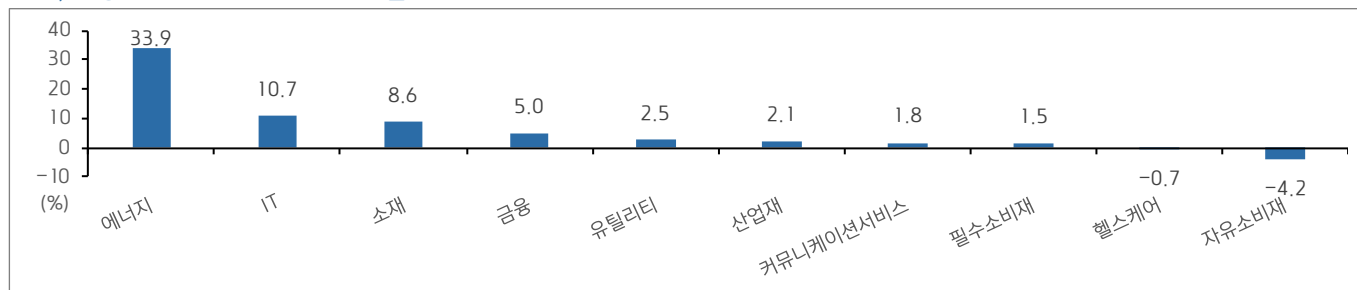
유럽,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1)



유럽,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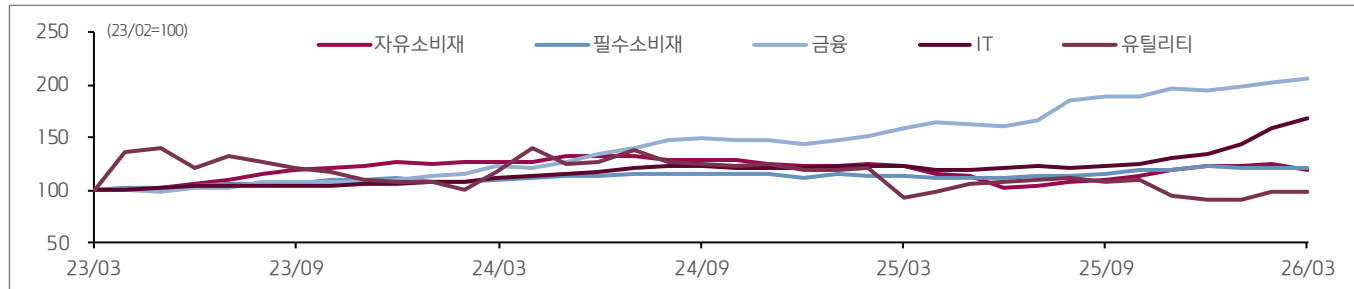
유럽, 업종별 최근 3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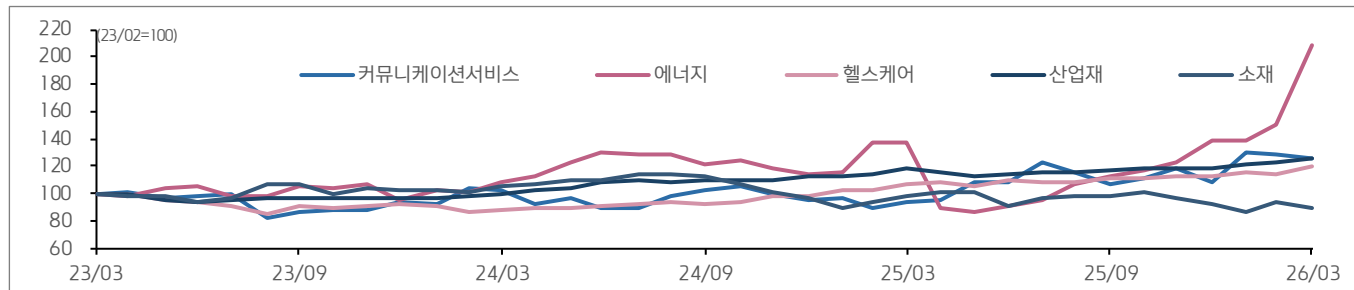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2. (실적) 일본 EPS(Fwd. 12M)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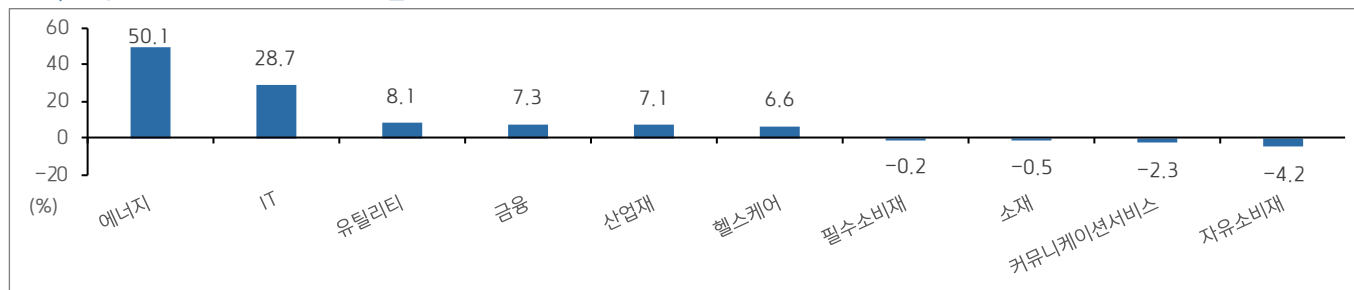
일본,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1)



일본,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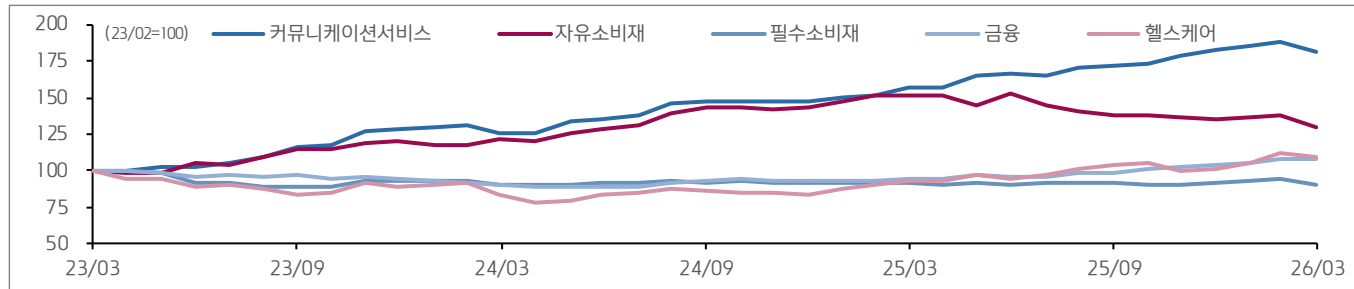
일본, 업종별 최근 3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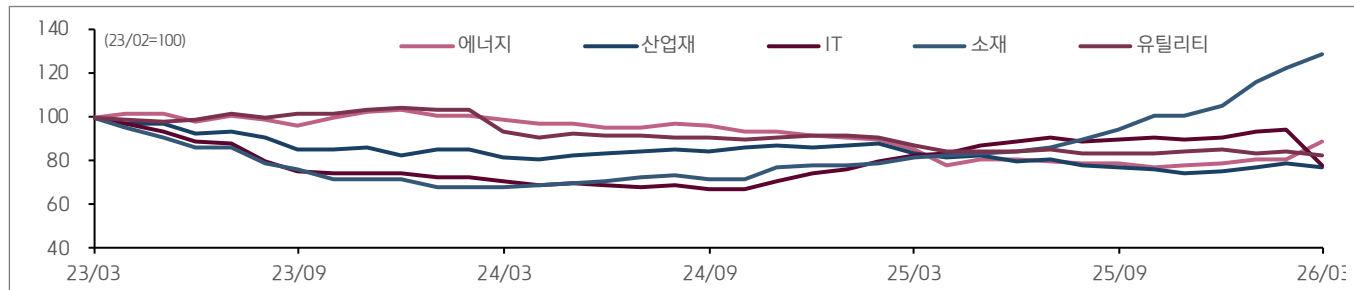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3. (실적) 중국 EPS(Fwd. 12M)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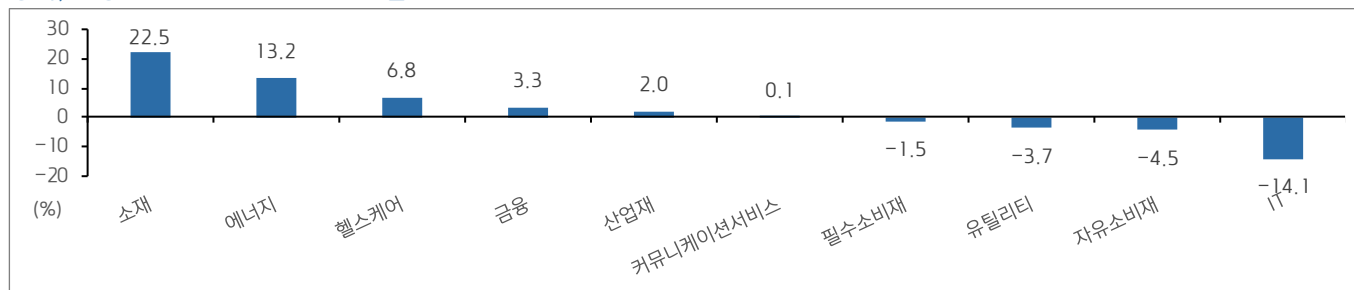
중국,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1)



중국,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2)



중국, 업종별 최근 3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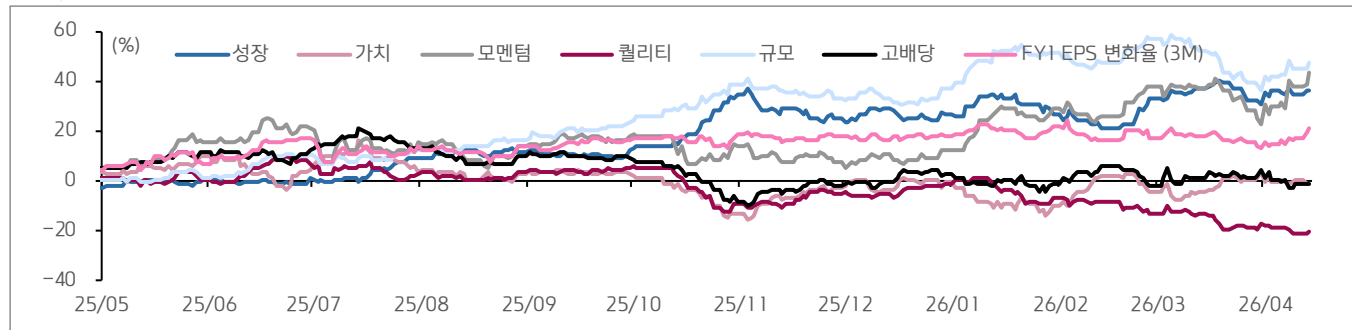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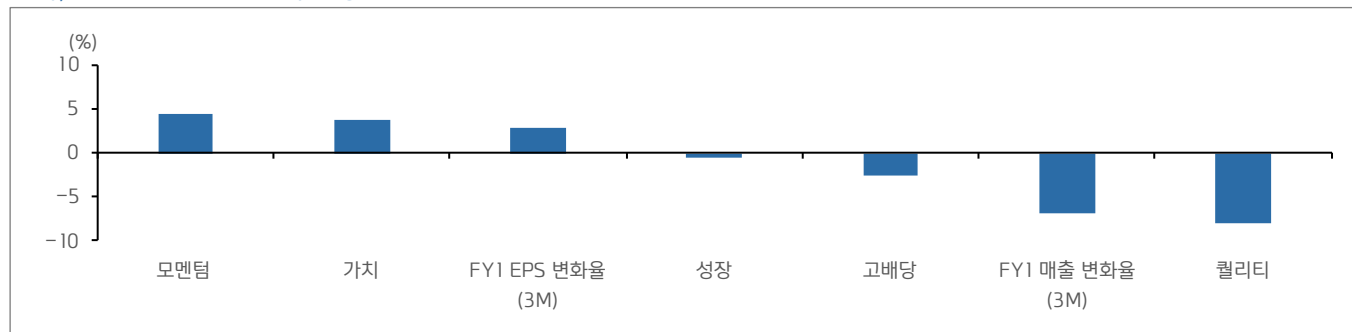
14. (스타일) 한국 주요 스타일 팩터 동향

- ▶ 최근 1개월 기준,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3월 이전의 추세로 복귀하는 모습. 그 결과 대형수출 주도주를 중심으로 재차 반등 탄력이 높아지며 모멘텀 스타일 및 이익모멘텀 팩터의 강세 연출. 그 외에도 최근 전쟁에 따른 재건 기대감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자 전통 산업군 중심의 가치 스타일 또한 강세

한국, 최근 1년 스타일 팩터 롱/숏 누적 성과



한국, 최근 1개월 스타일 팩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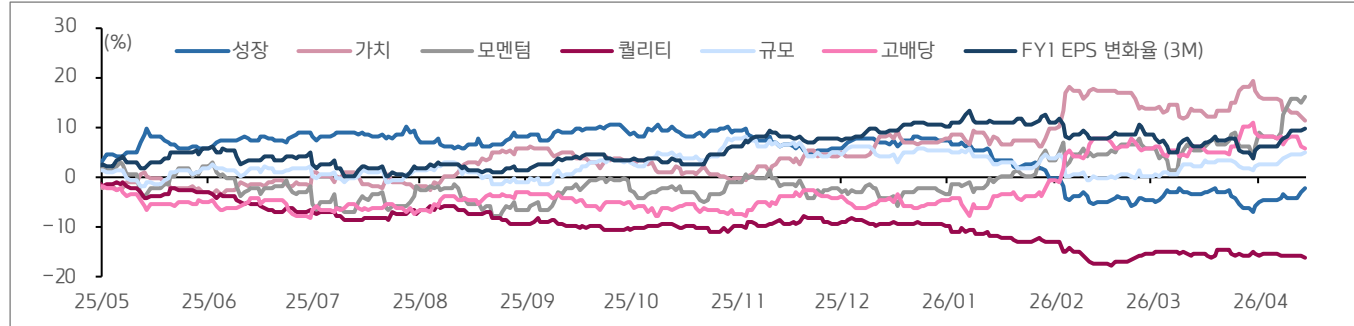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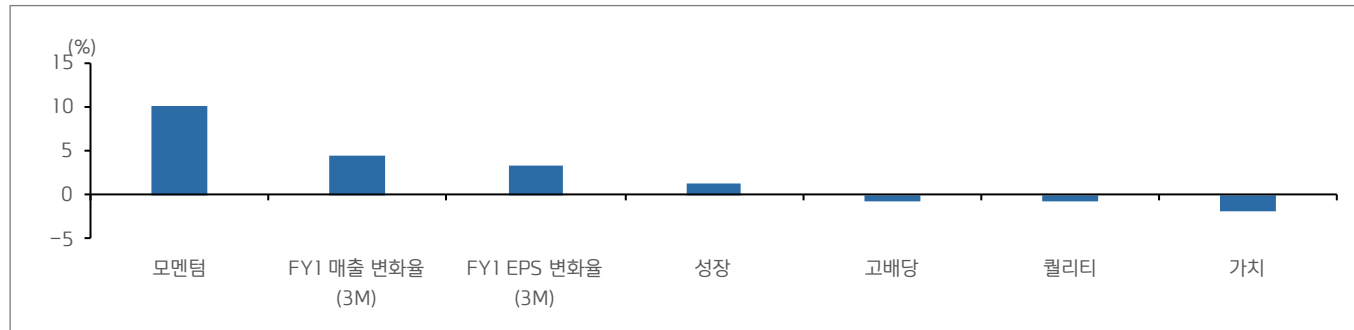
15. (스타일) 미국 주요 스타일 팩터 동향

- ▶ 최근 1개월, 미국은 모멘텀 스타일과 이익모멘텀 팩터만이 유의미한 강세 흐름이 연출
- ▶ 지정학적 불안과 함께 증시 전반의 가격 조정 흐름에도 주요 IT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며 밸류 에이션 부담 완화. 그 결과 AI 버블 관련 부담이 잦아들며 모멘텀 스타일의 탄력이 높았음

미국, 최근 1년 스타일 팩터 롱/숏 누적 성과



미국, 최근 1개월 스타일 팩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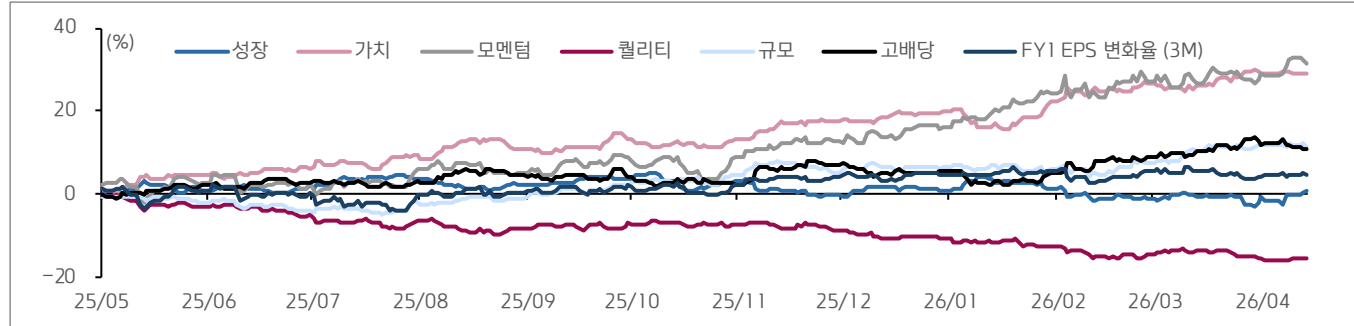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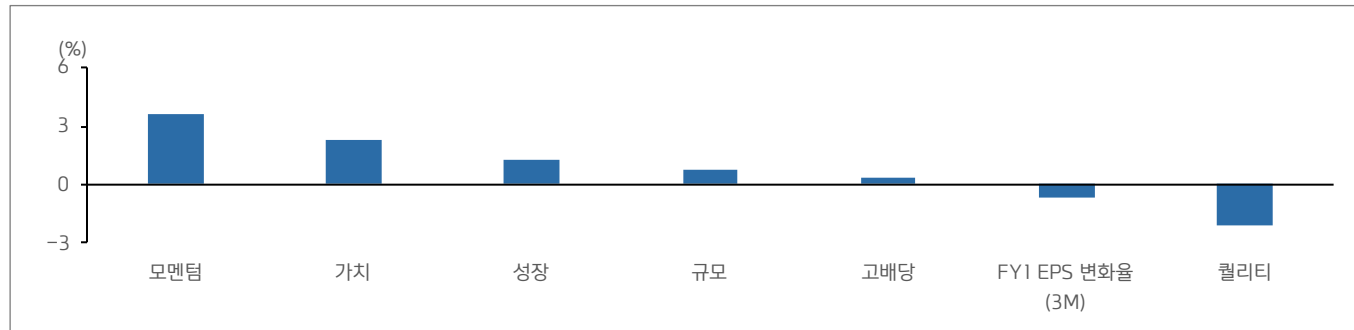
(스타일) 유럽 주요 스타일 팩터 동향

- ▶ 최근 1개월, 유럽은 가치 스타일이 주도하는 모멘텀 장세가 지속되는 모습. 일부 AI 테마의 수혜로 테크 업종들의 강세도 존재하나, 산업 생산 개선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 영향

유럽, 최근 1년 스타일 팩터 롱/숏 누적 성과



유럽, 최근 1개월 스타일 팩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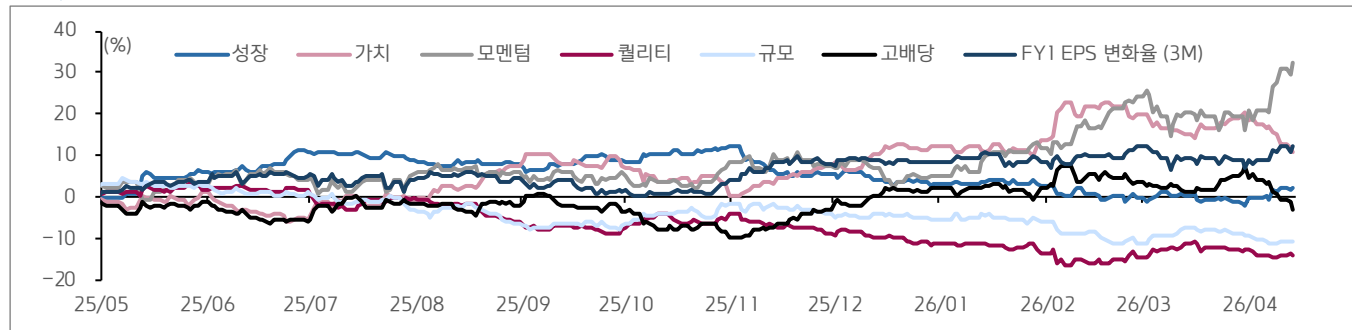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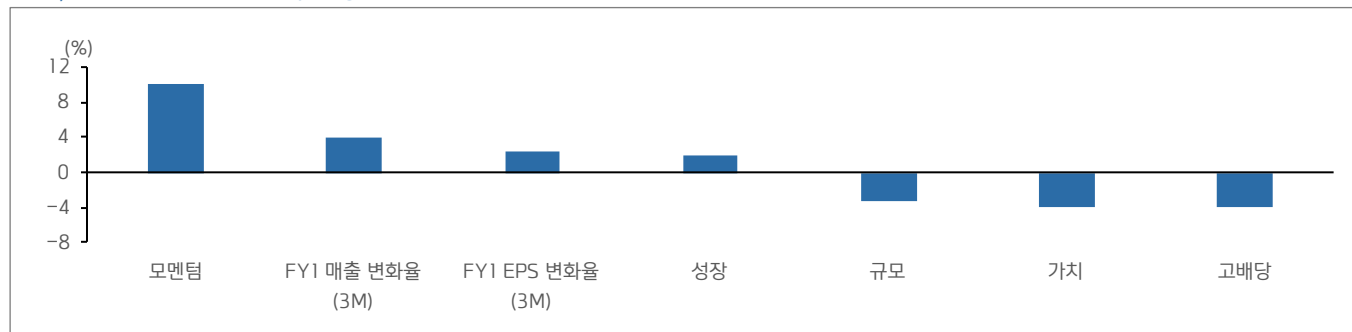
17. (스타일) 일본 주요 스타일 팩터 동향

- ▶ 최근 1개월, 일본 역시 AI 테마와 관련된 반도체, 전자부품, 자동차 등과 관련된 섹터의 모멘텀이 이어지며 가장 강한 성과를 기록
- ▶ 상대적으로 전통산업 비중이 높은 형태를 지니고 있어, 금융/구경제 중심의 대형 가치주 보다는 중소형 성장주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 점이 특징

일본, 최근 1년 스타일 팩터 롱/숏 누적 성과



일본, 최근 1개월 스타일 팩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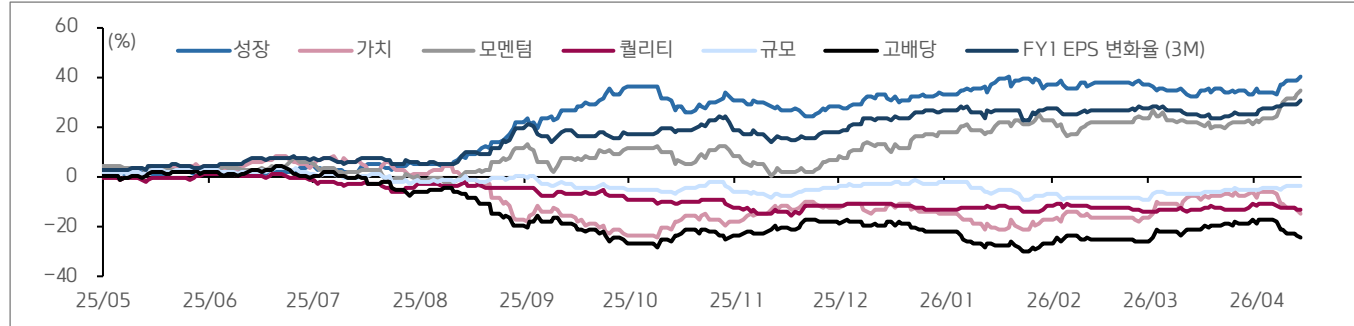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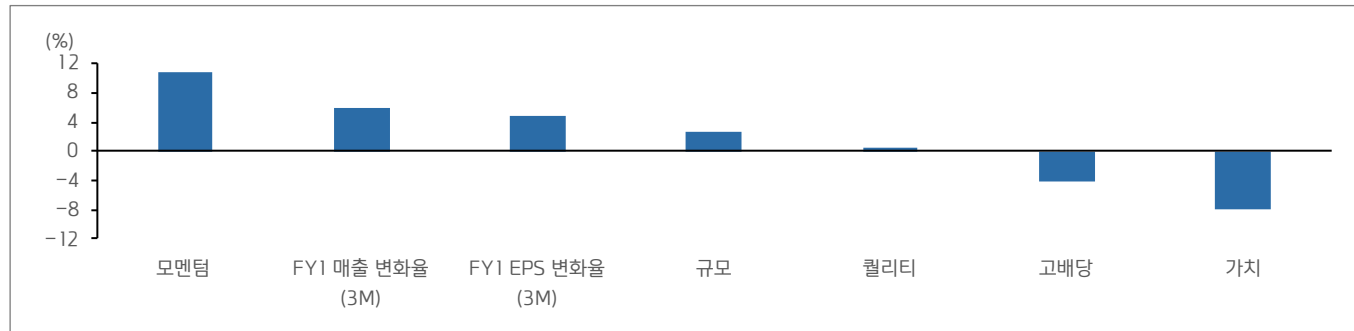
18. (스타일) 중국 주요 스타일 팩터 동향

- ▶ 중국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 전반으로 이어지고, 중국내 인프라/정책 기대감이 유효한 점에 힘입어 산업재 및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모멘텀이 어어지는 모습.

중국, 최근 1년 스타일 팩터 롱/숏 누적 성과



중국, 최근 1개월 스타일 팩터 성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